

된다. 이야기와는 正反對되는 이상한 이야기이다.

光背에는 蓮花座臺위에 앉아 있는 化佛이 三軀있다. 上部의 化佛은 合掌하여 默念하고 있는 모습이며 左側의 것은 降魔觸地의 手印을 하고 있으며 右側의 것은 不確實하다. 光背左右周邊에는 衣裳의 레이스모양의 紋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으며 最上部에 올라가서 무늬가 굵어지며 얼키어 맨 것같이 보인다.

菩薩像은 約 六·五 cm 두께로 浮刻되어 있으며 頭部는 如來像같은 인상을 주고 목에는 二條線이 있다. 衣裳은 菩薩像의 樣式을 가진 것이 뚜렷하다. 左手는 衣端을 쥐고 있으며 흔히 볼 수 없는 이상하게 주름잡은 法衣로 양쪽 어깨를 덮고 있다. 右手는 가슴 위에 얹어 놓고 있다. (像高는 一八〇 cm, 幅은 九七 cm, 厚 二〇 cm 全高는 二二五 cm 光背徑 二二 cm) 이 彫刻品을 뒤집어서 裏面은 보지 못하였지만 아마 거칠을 것으로 생각한다. 二次訪問時 同行하여 實測한 申榮勳氏의 意見에 의하면 同像의 年代는 高麗를 若干올라 갈 것이라고 한다.

二  
同學校에서 나오는 길에 申榮勳氏는 座臺石의 一群을 發見하였는데 이 옆에는 작은 섬이 있는 蓮池가 있으며 竹山里 東部洞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있다.

最下石에는 側面에 眼象彫刻이 있고 八角이다. 第二石 역시 八角石인데 五面에는 眼象內에 獅子像이 보인다. 第三石은 동글며 複瓣伏蓮이 彫刻되어 있고 第四도 역시 圓形이며 二重複瓣蓮花가 조각되어 있다. 第五石 또한 八角인데 樣式化된 蓮瓣이 있어 또는 동글기도 하고 혹은 모를 내기도 하였다. 第六石은 八角柱이며 第七石은 重瓣蓮花紋을 들린 八角形이다. 이들은 적어도 二個以上の 座臺가 不規則하게 混合되어 쌓여져 있는 것인데 近處에서는 其他 遺品을 發見하지 못하였으며 間議한 사람도 없었다.

三

郡廳當局이 考古美術에 屬하는 對象物과 가장 緊密한 關係에 놓여 있는 事實에 비추어 그들과 體系的인 連絡을 圖謀하여 國內各地方에 散

在한 모든 遺跡들의 完全한 記錄을 入手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本人(馬鬪樹夫人)은 崔德純氏와 여러차례 經驗한 바이지만 특히 奉化 같은 곳에서는 훌륭한 座佛 및 其他의 彫刻品에 對하여 이들 郡教育課에서 目錄과 圖版이 作成整理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英文翻譯·崔德純氏)

母子曲玉의 一例

朴敬源

一  
昨年 여름 扶餘에서 出土한 母子曲玉은 서울大學 博物館에 收藏되었는데 그 經緯와 거기에 對한 金元龍氏의 解說은 本誌 第二卷 第十號에 發表된 바와 같다.

筆者는 旬餘前 釜山市 富平洞 所在 金某氏의 所藏品中에서 偶然히 母子曲玉 一個를 보았는데 金氏는 約 五年前 晋州市內의 骨董商에서 이것을 購入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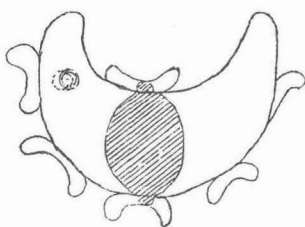
그러므로 出土地에 對하여는 아무런 根據도 없는 것이나 흔히 볼 수 없는 遺物이므로 簡單히 紹介하기로 한다.

二

이 曲玉은 全長 六·八 cm 胴體의 最大두께 一·七 cm의 크기로 滑石이나 蠟石보다는 硬度가 높고 黑斑이 섞인 灰色의 石材로 만들어졌는데, 一側面은 이 黑斑이 全面에 나타나서 灰色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스레한 黑色에 가까운 色彩를 띄고 있어 大理石의 一種이 아닌가도 疑心된다.

全體의 形態는 曲線이 펴 洗練된 便이고 背面 中央에 한개와 腹部에 五個의 小曲玉이 突出되어 있다.

扶餘 出土品과 다른點은 兩側面에는 「子玉」이 없고 또 腹部의 끝에 있는 「子玉」은 完全히 「꼬리」의 形態를 가져어서 扶餘 出土品보다 한층



母子曲玉 S=1/2

「魚形」에 가까운 印象을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六個의 「子玉」中 尾部の 一個를 除外한 五個의 「子玉」은 「母玉」

에서 突出했다거나 派生했다는 느낌보다도 그 自體로서 完

成된 「子玉」의 하나 하나가 所定의 位置

에 附着하였다는 느낌을 줄만치 自然스럽고 表面은 平滑하게 研磨되어 있다.

頭部에는 徑〇・二五cm 가량의 구멍을 兩側에서 맞닿았는데 兩側에서 進行된 구멍은 八割가량의 部位에서 若干어 나게 合致되었다.

이 曲玉은 前記한 바와 같이 晋州에서 發見되었다는 것 以外에 그 出處가 未詳하나 全體의 形態와 彫琢이 洗練된 曲線美를 充分히 發揮한 完成品이라 보겠다.

形體上으로는 尾部の 「子玉」은 魚形에 가깝다고 보겠으나 頭部の 「子玉」이 過少하여 「眼孔」으로서의 表現意識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腹部和 背部의 「子玉」은 小曲玉으로서의 거의 完成된 形態를 갖추어서 魚類의 「지느러미」와는 距離가 멀어진 듯하다.

結局 그러고 보면 이 「母子曲玉」은 魚形說을 支持하는 要素와 反對하는 要素를 俱有하고 있는 셈이고 또 이것이 國內에서 生産된 것인지 渡來品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하나 興味있는 資料이므로 同人諸位의 參考에 供하는 바이다.

### 日本の 舊石器時代遺蹟

金 元 龍

近者 日本考古學雜誌 四七卷 第四號에 依하면 北九州 大分縣 丹生(니우)에서 舊石器時代 礫器가 發見되고 있다. 아직 仔細한 報告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豫報가 佐藤, 小林, 阪口 三氏에 依해서 發表되고 있다. (P. 293-311)

이 舊石器는 大分大學의 富來助教授가 처음 發見한 것이며 그것이 前期 舊石器時代의 것이 아닐까 하고 疑心한 富來氏는 이 事實을 今年 二月 學界에 報告하여 드디어 여러 學者들의 現地調査를 보게 된 것이다.

이 遺蹟은 九州 東北岸인 大分縣 北海邊郡 坂市町 大字 丹生の 大野川 邊 段丘臺地上에 있으며 七箇의 段丘中 第二段丘에서 採集된 것이다. 이 段丘는 砂礫層, 角礫層 위에 赤色土層이 있고 表面에는 火山灰層이 덮혀 있는 것인데 調査者들은 이 赤色土層을 第三間水期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遺物이 採集된 確實한 層位는 分明치 않으며 茶栽培를 위해 불도-자로 갈아 넣은 混亂된 層位에서 採集된 것이다.

採集된 遺物은 都合五〇箇의 石器뿐이며 그 中에는 二一개의 Chopper 와 五개의 Chopping tool七개의 石核石器, 一七개의 不整形 剝片石器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礫의 一部를 裂落시켜 簡單한 刃部를 달았 것이며 아프리카의 Kafuan石器나 印度의 Soan 石器의 類